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양담배 수입개방과 쇠고기 수입개방

“

이번 추석에는 아들이들한 수입쇠고기로 제사상을 차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치아가 시원찮은 우리 조상들이 미국의 압력과 정부의 특별배려로 큰 호강을 하게 되었다.

이제 닫혔던 대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안방을 내어 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



노 영 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연초 모 일간지에 하바드대학교 교수인 라이샤워 박사는(극동문제 전문가) 88년이야 말로 한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이며, 88년을 성공적으로 잘 넘기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1910년으로 되돌아 가는 분수령이라고 하였다. 잘 넘긴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자율화·민주화가 이루어져 국민의식이 선진화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될 때 시장도 개방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1910년의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910년이란 광복을 맞은 1945년에서 역산해 보면 어떤 해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축산업계도 88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우리나라 축산의 상징적 존재인 한우가 쇠고기 수입이라는 외세 앞에 어떻게 견디느냐와 이후 계속될 축산물의 수입 개방에 과연 우리나라 축산이 얼마나 견딜 것이냐 하는 걱정이다. 축산업계도 금년에 잘못하면 1963년의 축산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개방되는 절차를 양담배의 경우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여론회석작업이다. 미국의 압력이 대단하니 수입을 완전히 막고 있으면 우리 상품의 수출길이 막히니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반대의 예봉이 꺾이고, 수입을 기정사실화 하게 되고, 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대책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수입창구

일원화가 채택된다. 압력에 의해서 수입은 개방하되, 실제로 수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별볼일 없게 된다고 홍보하여 연초경작지나 전매노조원들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게 된다.

물론, 홍보내용은 전매법이 있고 수입창구는 전매공사 등으로 일원화 하고, 담배 판매 점포를 통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가격도 일정 금액의 전매수익금을 부과하여 국산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2중·3중으로 장벽을 쌓았기 때문에 절대 안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고, 이러한 마지노선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지금 양담배수입을 막고 있던 마지노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구 일원화는 국내재벌들로 개방되었고 가격은 미국·일본보다도 싸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망도 슈퍼나 유흥업소에서 유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광고까지도 하게 되었다.

이제 26일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내에서 부족한 1만4천5백톤을 금년에 수입한다는 것이다. 농민의 주장대로 수입을 막고 있으면 현재 GATT에 제소되어 있어 패소할 경우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축산인들의 주장도 쇠고기수입 결사반대에서 수입창구의 축협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축협중앙회장이 이사장이 되는 축산물유통사업단으로 수입창구를 일원화 하고, 호텔용품센터를 유통사업단의 수입물량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판매가격도 차익금을 축산진흥기금으로 흡수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나무랄데 없는 비관세 장벽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양축가들은 왜 불안한 것일까? 무엇이 못마땅하던 말인가? 호텔용품센터에서 3천여톤 수입하는 것 때문일까?

절대로 아니다.

양축가들은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국민건강을 좀먹는 양담배의 수입개방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쇠고기의 수입개방 절차가 양담배의 경우에서처럼 너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78년도부터의 쇠고기와 소 수입을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창구일원화가 얼마나 힘이 없는 제도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생산자 단체가 아닌 정부의 업무대행기구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는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하라는 것이고, 창구일원화는 인정을 하지도 않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칼날을, 그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어 항상 협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쇠고기 수입은 수입개방을 위한 첫단계에 불과한 것인가?

양담배 수입개방의 절차의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한 첫걸음은 아닌가?

유통·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왜 게을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묵인하여 온 무허가 축사의 단속은 시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합사료 원료사료인 사료곡물이나 대두박 등 주요 원료의 수입규제는 양축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충분한 해명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축가들이 수차 건의한 사료원료를 비롯한 생산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부가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인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추진되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데는 말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비교우위를 주장하여 비교열위산업인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등 양축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의 쇠고기 수입창구 일원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